

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촌개발처 농촌관리부 손명훈부장(061-338-5441) / 제공일: 2021. 7.15 (총 2매)

농어촌공사 체류형 농촌모델 경북의성고운마을,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모전 수상

- 경관조성 우수사례로 국토교통부 주최 2021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수상 영예
- 이상적 농촌 마을 구현해 농촌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린 공간 창출

□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「2021년 대한민국 국토대전」에 ‘경북 의성 고운마을’을 출품해 대한국토·도시계획 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.

- 「2021년 대한민국국토대전」은 ‘품격 있는 국토, 아름다운 경관’을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국토,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사례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시상식이다.

* - 주최 : 국토교통부, 국토연구원, 건축공간연구원

- 주관 : 대한국토·도시계획학회, 한국도시설계학회, 한국경관학회, 한국공공디자인학회, 대한건축학회, 대한토목학회

- 공사와 의성군은 도시·농촌·자연의 문화경관, 활력 있는 가로와 광장 등 총 9개 분야 중 ‘우수한 기능과 디자인의 주거·상업·업무단지’ 분야에 공동 응모하였다.

□ 경북 의성 고운마을은 귀농귀촌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체류형 농촌 마을모델로서 건축·조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상적 농촌 마을을 구현한 사례이다.

- 이번 공모전에서 고운마을은 아름답고 창의적인 경관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와 함께, 지역주민과 공공부문 협업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주거단지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았다.

-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일원에 조성된 고운마을은 2016년 농식품부 ‘활기찬 농촌프로젝트’ 시범지구로 선정되면서 의성군에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일괄 수탁해 추진했다.
- 단지 내에는 체류형 농장 25세대, 커뮤니티 시설 3개동, 캠핑 방갈로 15개소, 사이트 25개소 및 야외잔디마당이 조성됐으며 총 112억원 (국비 56억, 군비 56억)의 예산이 투입됐다.
-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아름다운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토목, 건축, 조경,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추진에 전문성을 확보 하였으며 친환경, 비용절감, 사회적약자 배려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.
- 2018년 시설준공 이후 현재는 고운마을 협동조합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, 2020년 8월부터 본격 운영한 캠핑장에는 현재까지 3천여 명이 방문했다.
- 임대주택과 캠핑장이 도시민에게 인기를 끌면서 지역농가 농산물 직 거래 등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.
- 김인식 사장은 “이번 수상으로 농촌 경관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” 며 “앞으로도 공사에서는 농촌 고유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조성을 통해 품격 있는 국토 경관 조성에 앞장서겠다” 고 말했다.